

광주·전남 158명 희생에 ‘눈물바다’... “심리치유 중요”

직계가족 아니어도 슬픔 통감
합동분향소 시민 발길 이어져
“눈물 안 멈춰” 트라우마 우려
지자체 심리지원 이용률 저조
“심리적 외상, 간과돼선 안돼”

#광주에 거주하는 김수열(84)씨는 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광주 시민 85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 그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분향소에서 차분히 순서를 기다린 후 헌화를 마친 김씨는 분향소를 떠나며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선불리 말을 내뱉기조차 힘들어하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안타까운 사회적 참사가 발생해 일상생활을 보내면서도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았다”며 “희생자들이 편안히 영면에 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은 이원아(37)씨는 희생자들을 위로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딸 이서울(7)양과 함께 김포에서 광주로 향했다. 그녀는 딸에게 세상의 현실과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이번 여정을 결심했다. 광주에 도착한 이씨는 먼저 5·18역사기록원을 방문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광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딸에게 들려줬다. 이후 합동분향소를 찾은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희생자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현장 인근 울타리에는 한 유족이 희생자를 기리는 애절한 손편지가 붙어있다. 나건호 기자

을 추모하며 마음을 전했다. 이씨는 “추모 장소에 오기 전에 딸에게 참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다”며 “사회의 불안정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광주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줬다”고 말했다.

헌화를 마친 후, 이양은 서툰 글씨로 ‘천국에서 편안히 사세요’라는 문구를 적어 분향소에 남겼다. 두 모녀는 추모를 마친 뒤에도 분향소 주변을 한참 동안 서성이며 서로를 껴안은 채 눈물을 흘렸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대다수가 광주·전남에 거주했던 사실이 전해지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정서적 고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심리치유 지원정책의 시민 이용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심리적 외상에 대한 조기 치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일 오후 찾은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합동분향소 앞에서는 수많은 추모객 사이 서구보건소에서 파견을 나온 분홍색 버스가 눈에 띄었다.

직원들은 버스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심리 지원’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첨하고, 홍보물을 배치하는 등 트라우마를 겪는 시민들의 치유를 돕겠다고 홍보

에 나섰지만, 버스를 찾는 시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광주시는 이번 참사로 85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이에 광주 5개 자치구 보건소는 슬픔을 겪는 유족과 시민들의 심리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심리 지원 버스를 보유한 남구·서구보건소는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지난해 12월30일부터 현장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날 오후 기준 운영 기간 동안 해당 버스를 이용한 시민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유족의 경우 대부분 사고 현장인 무안

국제공항에 마련된 심리 상담 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의 경우 심리 지원 버스 및 상담시설 이용 가능 여부나 심리치유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는 유족뿐 아니라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맞춤형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사회적 참사로 인해 고통을 겪는 시민들이 이곳에서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얻고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형참사에 따른 심리적 외상의 경우 초기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명권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은 “지역에서 대형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심리적 외상의 경우 일반 외상에 비해 위험성이 간과돼 방치되는 측면이 크다”며 “가벼운 질병도 방치하면 증상이 심해지고, 만성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심리적 외상도 초기에 개입돼야만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 이후 우울, 불안 증세를 겪거나, 과각성·재경험·회피 등 심리적 외상의 징후를 느끼는 시민들은 곧바로 정신건강 관련 지원과 적절한 치유를 받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참사로 인해 반복적으로 우울·불안을 느끼는 시민들은 가까운 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거나,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상아·윤준명 기자

제주항공 희생자 유품... 유가족 인계 시작

2일 0시 기준 희생자 24명 인도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지 닷새째인 2일 희생자 179명 중 24명의 유해와 유류품 200여점이 처음으로 유가족에게 인도되며 장례 절차에 들어섰다.

2일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참사 희생자 179명 중 24명의 유해가 유가족에게 인계됐다. 지난달 30일 첫 유해 인도 4명을 시작으로 31일 7명, 이달 1일 13명이 유족 동의와 서류 절차를 마치고 빈소로 옮겨졌다.

본부는 전날 늦은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희생자 65명의 DNA 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뒤 DNA 분석·대조를 통해 이날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유가족 동의 하에 인도한다는 방침이다.

유류품 인계 절차도 이날부터 처음 시작됐다. 유족들은 이날 낮 12시 30분께부터 각 희생자 유족 대표 1명씩 조를 나눠 20분 간격으로 무안국제공항에서 버스를

통해 희생자 유류품이 보관된 공항 차고지로 이동했다.

적막한 분위기 속 보관소를 다녀온 유가족들은 작은 종이로 된 박스 속 물건들을 만지며 힘겨운 발걸음을 옮겼다. 울분을 속으로 삼키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비통한 울음소리는 손가락 사이로 터져 나왔다. 한 유가족은 텐트로 돌아온 뒤 유품을 확인하며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만 연신 읊조리기도 했다.

유류품은 소유자가 명확하게 확인된 물품 200여점에 대해서만 이뤄졌고 유족은 유류품 중 휴대전화나 PC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의뢰할 수 있다.

또 희생자들이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 공항 주차장에 세워둔 유족의 차량을 인도하는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

본부는 현장에서 수습한 유류품의 정확한 개수는 밝히기 어렵지만, 수사에 필요한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가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민헌기 기자

유가족 대표단, 합동분향소 연장 요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들이 국민의 관심과 애도에 감사를 전하며 전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운영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대표단은 2일 무안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의 위로와 관심 덕분에 버티고 있다”면서 “과제는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르는 것이지만, 수습 과정

이 길고 어렵다 보니 가족들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도록 전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운영 연장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안국제공항과 무안스포츠파크, 전남도청 광장, 광주 5·18민주광장 등에 설치된 분향소가 아닌 지자체에 설치된 대다수의 분향소들은 국가예도기간인 4일까지만 운영된다.

민헌기 기자

‘익명을 방패 삼아’... 도 넘은 참사 희생자·유족 모욕

경찰, 4명 입건·댓글 125건 삭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주항공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상대로 한 모욕글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경찰이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악성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지난 1일 의사나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참사 유족인 의대생을 조롱하는 글이 게재됐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해당 글은 제주항공참사에서 어머니를 잃은 20대 아들 A씨의 인터뷰 기사를 언급하고 있다. 수도권 의과대학 4학년생으로 오는 9일 의사 국가시험을 앞두고 있는 A씨가 “참사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해 1년 더 공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이다”며 “슬픔을 감내하며 가족 재단 텐트 안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 어머니께서 참사 전날까지도 응원하는 문자를 보냈었고 평소에도 의사 고시를 앞두고 많은 격려를 해주셨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해당 기사를 캡처해 올린 커뮤니티의 글에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인 A씨를 위로하는 글이 아닌 조롱하는 내용의 댓글이 다수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댓글에는 다수의 의사와 의대생들이 ‘자식이 죄인인데 별은 부모가 받았네’, ‘감굴 평균’, ‘감굴 낳은게 이미 죄인 아니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감굴’은 커뮤니티 안에서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을 뜻하는 단어로 의대 증원에 대다수 의대생이 학교를 떠나고 국가고시를 응시하지 않는 가운데 A씨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것을 밝히자 ‘배신자’라고 낙인찍고 비난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커뮤니티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킨 의사를

비난하기 위해 만든 ‘의사 블랙리스트’가 유포된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향한 모욕성 게시물도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경찰이 추적 중이다.

경찰이 추적 중인 한 글쓴이는 참사 당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무안공항 유가족들만 뺀다’,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 상급병급일 듯’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악의적 비방 등 수사 중인 4건에 대해 압수영장을 신청했으며 자체 모니터링으로 게시물 125개를 삭제 조치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희생자 및 유족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에 대해 관용없이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민헌기 기자

무안공항·지방항공청 등 압수수색... 로컬라이저 적절성 수사

관제탑 교신·기체 정비 이력 등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전남경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남경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일 오전 9시부터 무안공항 담당부서 사무실,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 사무소 등에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

의 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증거물 확보 차원으로 무안공항 내 활주로 CCTV 영상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여객기의 시간별 상황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께 부산지방항공청 무안공항출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현장에서 1박스 분량의 압수물품을 확보했다. 하지만 로컬라이저(방위각)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어 이날 늦은 오후까지 압수수색을

통해 활주로를 비추는 CCTV 영상도 확보하고 있다. 수사는 참사 원인 규명 및 형사처벌 여부를 두고 경찰이, 기술적인 부분을 두고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담당한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사고기와 충돌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의 적절성과 사고 직전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 사고기 기체 정비 이력 등을 수사한다.

민헌기 기자